

거친 상남자 변신 3년만에 스크린 복귀

영화 '공조' 주연 현빈... 액션신 대부분 스텐트맨 없이 직접 소화

"이제 악역도 포함 하지 못했던 역할 다 해보고파"

길리엄의 남자 현빈은 영화 운이 없었다. 해병대 제대후 복귀작으로 도전한 '역린'은 그야말로 '역린이 됐다'. 그때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다. 전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데 영화 보라고 홍보는 어려운 시기였다.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는데 그쳤고, 현빈의 화난 등근육만 화제가 됐다. "너무 안 좋았던 시기였고 그렇다보니 그 (영화)자체가 잘 안 알려졌던 것이 개인적으로 좀 속상했습니다."

3년만에 영화관에 다시 돌아온 현빈은 먼저 '역린'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냈다. 오래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그는 오는 18일 개봉하는 영화 '공조'에서 거친 상남자로 변신했다. 남북한 형사들의 이야기로 현빈은 북한 형사역을 맡아 강도높은 액션을 선보인다. "기준에 했던 것과는 표현방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말보다 움직임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감정표현을 많이 하는 인물이 아니니 서로에 대한 공감 등이 단답형으로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북한 형사 '똥철령' 역이다.

남한 형사 역할을 맡은 상대 배우 유해진에 비해 대사는 적은 대신 액션 장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이다. 액션신 대부분을 스텐트맨 없이 직접 했다. 차량 추격전에서 와이어 하나로 몸을 의지한 채 직접 액션을 소화했다. 그는 "100% 이상은 제가 한 것 같다"며 "차량 관련된 액션신의 경우에도 원래 대역 분이 준비를 했다. 그런데 보니까 안전장치가 꽤 안전하더라. 그래서 무슬림, 감독 등과 상의해 도전. 액션신을 잘 마쳤다"고 밝혔다.

액션 도전은 이번 영화에서 가장 고난도였다. 상대방이 다칠 수도 있는 만큼 매 순간 긴장해야 하는 일이었다. "사소한 부주의로도 큰 부상이 생기는 만큼 계속 연습을 반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물론 욕심을 부린 게 어떤 분에게는 걱정을 끼쳤지만, 촬영에는 또 다른 영

글이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됐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했던 것 같다"며 "또 액션 기회가 주어지면 도전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북한 형사가 된 만큼 북한 사투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탈북자 출신의 '북한말 선생님'이 매번 촬영장에 나와 감독과 별도로 연기를 지켜봤다. 현빈은 "북한말 선생님을 일찍 만났다. 가장 먼저 요청한 게 북한말과 액션팁이었다"며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마주 만나 연습했다"고 전했다. "선생님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다음 연기로 넘어갈 수 있었지요.' 북한 사투리가 등장하는 거의 모든 영화를 그 분이 감수할 정도로 영화관에서 유명하지만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브로맨스로 주목받고 있는 배우 유해진에 대해 "일상적인 편안한 연기의 달인 아니냐"며 "옆에서 보면 재미도 재미지만 배우는 게 많다. 엄청 철저히 준비하시더라"며 존경의 뜻을 표했다.

인방극장에서 발표한 로맨틱 가이로 여심을 사로잡았던 그는 박대통령도 '좋아하는 배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속에서 대통령이 병일 가명으로 '길리엄'을 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빈과 하지원의 드라마 '시크릿 가든' 패러디가 SNS를 달구기도 했다. 당시 '길리엄' 역의 하지원에게 인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냈던 것"이라며 답장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현빈은 "드라마 '시크릿가든'이 끝난 지가 지금 5~6년 됐죠?"라며 "그냥 다시 볼 수 있어서 좋다" 무덤덤하게 넘겼다.

스타배우에서, 로맨틱가이, 상남자로 연기폭이 점점 진화중이다. 그는 "이제 악역도 해보고 싶다. 안한 건 다 해보고 싶다"며 연기에 대한 욕심을 보였다.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해보고 싶은 것은 해볼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배우로서 부담감은 어떻게 떨칠까. 강한 남자로 거듭난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인기요? 그다지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작품이 다 인



기를 얻을 수도 없고, 모든 캐릭터가 다 사랑받을 수도 없잖아요. 많은 사람 들에게 사랑받을 때, 오히려 그 때가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욕되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뉴스



전북-태국 세팍타크로협회 스포츠 교류 사업 협력 체결

전라북도세팍타크로협회(회장 이용선)가 지난 13일 태국 도담화관에서 태국 치앙마이 세팍타크로협회와 스포츠교류 사업 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스포츠 교류 사업 협력 체결을 통해 전북세팍타크로 협회와 태국치앙마이세팍타크로협회는 앞으로 연 1회 양 국가 간의 합동훈련, 양 국민·직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스포츠 교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회장 이용선, 전무이사 이정국, 감독 남궁병이 참석하였으며 태국 세팍타크로협회에서는 회장 카웬산 윗롱룻, 코치 브라쑤, 사무국장 솜삭 두영므앙등이 참석했다.

/김민근기자

비, 신곡 '최고의 선물' 발표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3년 만에 신곡 '최고의 선물'을 발표했다. 다고 소속사 레인컴퍼니가 16일 밝혔다. 비의 보컬을 중심으로 피아노와 스트링이 서정적으로 펼쳐지는 팝 발라드다. 국제가수 싸이와 그의 음악 파트너인 유건형이 협업했다.



특히, 비와 절친한 싸이가 작사는 물론 작곡과 곡의 전반적인 프로듀싱을 담당했다. 개인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제각기 다르나 가장 사랑하는 이가 최고의 선물이라 표현하는 남자의 뜨거운 고백을 담았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는 이 곡이 공개된 직후, 비가 자신의 연인인 배우 김태희를 향한 마음을 고백한 '프러포즈' 숨이 아나는 해석이 나올기도 했다. 비는 15일 0시 '최고의 선물'을 공개하기 전 방송을 통해 이 곡을 알리기 위한 총력을 다했다. 14일 오후 제3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특별무대를 시작으로 KBS 2TV '현역가장계' 게릴라데이트, JTBC '이능한남', KBS 2TV '유희열의 스키치북' 그리고 네이버 V라이브 등을 이어갔다. 이 같은 비의 '주말 공략'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tN 드라마 '노캐비' OST가 차트를 장악한 가운데에서도 주요 음원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올레뮤직과 소리바다 등에서 실시간 차트 1위를 찍기도 했다.

/뉴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